

미완(未完)의 빈 공간(空間)

Unfinished

화엄학림(華嚴學林) 수도원 계획안

조인숙 / 다리건축
by Cho In-Souk

프롤로그

인간의 美意識을 자극하는 要素가 作品속에 내재되어 있는기는 建築을 하거나 評價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름다움이 어떤 구체화된 형태에 담겨져 있어 그 형태 또는 그 로인해 만들어진 空間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좋은 건축을 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들은 이러한 美意識이전에 원초적인 것들조차 해결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다.

년 전에 우연히 한 보살의 소개로 실상사(實相寺) 주지인 道法스님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었고 그로부터 반 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녹음이 우거진 어느 여름날 스님께서 전화로 찾으셨다. 그 무렵 마치 모 寺刹의 불전(佛殿)설계일로 전라남도 지방을 드나들던 참에 광주를 거쳐 88도로를 달려 남원으로 향했다. 지리산을 연꽃에 비유할 때, 그 연꽃의 核에 해당되는 위치에 신라시대의 古刹 實相寺는 자리하고 있다. 파노라마로 이어지는 지리산의 실루엣을 맘껏 누릴 수 있는 곳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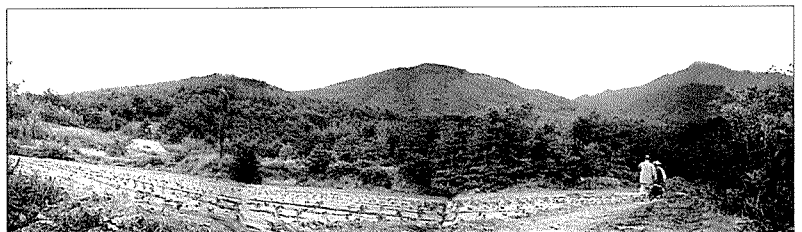
다. 도법스님께서 '길 그리고 길' 에서도 쓰셨듯이 韓國佛敎 최우선 과제인 바람직한 수행자의 相과 균형잡힌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화엄사상과 정신을 깊이 천착해야 된다고 판단하시어 實相寺내에 華嚴學林을 창설하셨고 그곳에서 수도하고 있는 승려들에게는 그 다음단계로 계속 정진할 수 있는 소위말해 상급반의 수련시설이 필요하여 의논차 필자를 부르신 것이었다.

寺刹 뒤편 산 밑에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더 떨어진 곳에 전답이 많은데 그 중 몇필지가 팔릴 운명에 처해있다. 농부가 돈이 필요하여 염소치는 사람에게 내어놓았는데 절뒤에서 염소를 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여 스님께서 인수하시게 되었다. 그곳에 장차 수행자들을 위해 수도원을 짓고자 하셨던 것이다.

실상사 경내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는 文化財규범을 따라야 하므로 복원 내지는 修理이외에 신축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는 그 규범을 따르고자 하면 경제가 뒷받침이 안되게 되어 있다. 사찰에는 돈이 없으니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는데 佛殿이나 강당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142-1외
대지면적	6,810㎡(2,060평)
국토이용계획	준농림지역
계획규모	50평건물 4동(약200평)



대지현황

또는 무슨무슨 關들은 기복신앙과 직결되므로 신도를 주머니에서 건축비가 나오지만 스님들 공부하기 위한 수도원을 지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경내를 벗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땅이 생긴 셈이었다.

思想이니 哲學이니 하기 이전에 寺刹 관련 건물설계에 대한 몇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는 시주자가 선뜻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의 건물규모로 쪼개는 것. 둘째는 유지·관리비용이 최소일 것. 셋째는 사용자가 바뀌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스님들께서는 한 곳에 영원히 계시지 않으므로 불특정 다수를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건물이 실제화되는 것은 눈에 보이므로 돈 낸 보람을 느끼지만 사후 유지·관리비까지 고려하는 시주자는 드물다. 보통 사찰은 신도들이 있으므로 유지관리비가 총당은 되지만 수도원은 관리비 총당이 불가능하다. 개인 또는 소규모 시주자가 선뜻 응낙할 수 있는 금액이란 대체로 일억원 미만이라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만일 한국식목조건축이라면 여덟 평 정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다. 개량 신식으로 하자면 약 30평 정도의 규모까지도 어찌어찌 지어볼 수 있는 금액이니 계산은 금방된다. 일반 건물은 단일 건물일수록 공사비가 절감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나 사찰은 반대다. 건물 덩어리가 크면 시주자 모으기가 어렵고 따로이 관리를 해야 하므로 번거롭다.

예를 들어 승려 한 분에게 필요한 수도공간이 평균 여섯 평이라 가정해보자. 열 분이 기거하려면 건물은 약 60평 정도 필요하므로 30여 평짜리 건물 두 채면 우선 된다. 건축비는 최소로 할 경우 약 2억 정도면 되겠지만 추후 생계유지비는 어찌할 것인가. 신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불전을 일만 원 놓고 간다고 가정을 하면 승려 한 분을 후원하려면 몇 명의 신도가 정기적으로 와야 하겠는가? 최소 한분에게 약 200여 만원이 든다고 하면 승려 한 분당 신도 50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수도승들은 대개 하루에 한 끼 정도 잡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분의 수도승을 후원하려면 월 약 2천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숫자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이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도법스님께 설명 드리기

를 전혀 금전적으로는 생산성이 없는 건물이므로 작게 지어서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돈벌이가 전혀 안되는 건물을 쓸 데 없이 크게 짓는 것은 최악이다. 부처님을 모시는 佛殿이야 장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수도원이다. 모습도 중요하지만 수도공간이라는 본질에 더욱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과정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일이었다. 주어진 예산이 없으므로 규모나 공사비를 마음껏 책정할 수 있는 일이 사찰일이다. 아마도 누군가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한 것 같고 필자의 소임은 기술을 보시(布施)하는 일이다. 사실 이런 경우 돈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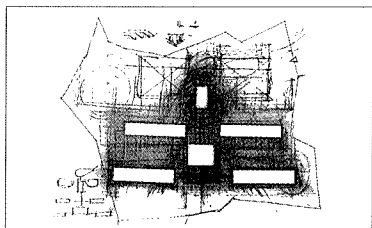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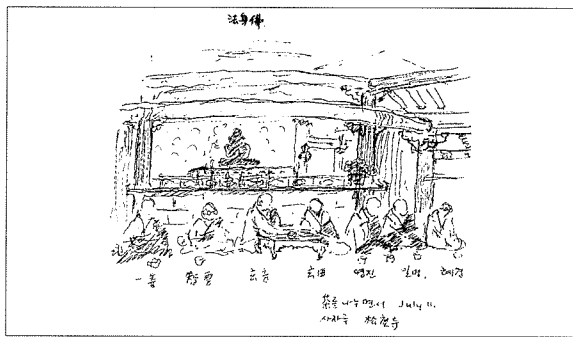
방향설정 및 기본구상안을 넘겨주기로 했다.

基地는 南高北低型으로 산 밑의 비교적 편편한 논이었다. 주위에 연못 및 관개용 저수지들이 있었고 사방으로 지리산이 눈에 들어왔다. 실상사까지는 불과 700~800m정도 걸어서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 열 다섯 분 내지 스무 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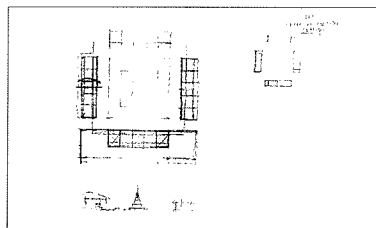
1) 비로자나불(毘盧舍那佛)과 지권인수인(手印: 부처의 손가락을 꼬부리는 형태) 중에 지권인은 비로자나불이 곁하는 것이고 이 형식은 일체의 무명 번뇌를 없애고 부처의 지혜를 얻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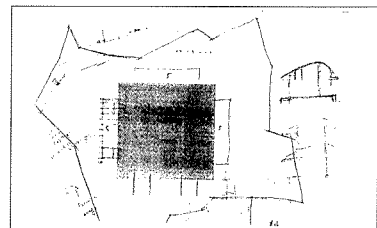
지권인(智拳印)



스케치 1



스케치 2



스케치 3

의 수도승이 기거할 수 있는 수도원을 짓기를 원하셨다.

우선 中心空間인 부처님 모시는 殿을 한 棟 가운데 놓고 수도승들의 방은 佛殿을 向하여 병렬배치하고 단체로 모여서 함께 예불 올릴 수 있는 강당을 배치하였다. 수도승들이 정진하는 공간은 개인개인이 自然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루-방-퇴-그리고 외부공간으로 이어 한 방향으로 늘어놓았다. 너무도 교과서적이고 개인적이라 흡족하지 않아 다시 배치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中心空間을 정가운데 두고 그곳에 비로전을 놓았다. 비로자나불¹⁾을 四面佛로 새길 계획을 하고 수도승들의 空間으로 에워싸서 초기 가람배치 형태로 하였다. 수도승들이 조석으로 부처님을 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것이다. 각자의 방에서 마루로 나와 예불을 올린다.

스님과 몇 번의 만남을 거듭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생각이 다듬어져서 비로자나불에 대해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이곳은 Advanced Class에 해당되는 승려들의 수도원이다. 과연 佛像이 필요할까?

이번에는 없애는 作業이 시작되었다. 像-Image, 佛像-Buddha Image, 상이 있고 없고의 實體의 문제는 아니리라. 中心空間을 비워 보았다. 즉 부처는 마음속에 存在하는 것으로 두고, 시작도 끝도 없는 빈 부분을 놓고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도록 하는 배치였다. 깨끗이 다듬어진 부처님의 형상이 없는 빈부분을 예배의 대상공간으로 구성하여 座禪²⁾ 중간중간에 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승들의 개실에서 문을 열면 전체가 예불공간이 되도록 했다. 외부에서는 직접 진입을 통제하고 승려들은 각실의 방문을 닫으면 개개인의 參禪공간으로 독립되어 佛像이 있고 없음에 구애되지 않고 그 存在 자체조차 무의미해질 때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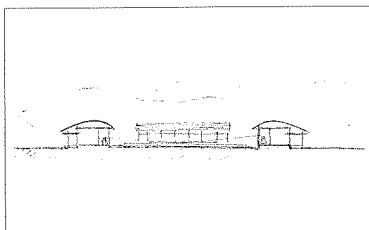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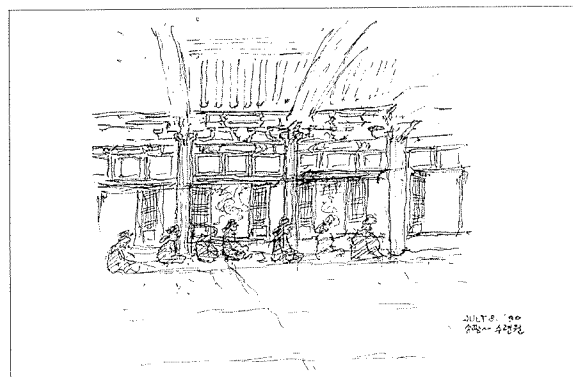
이 과정의 설명은 데리다의 "抹消(sous rature)" 과는 유사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 개념은 한 단어의 의미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독할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건물의 모양이나 재료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필요한 공간의 형상을 빈 공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빈 것으로 출발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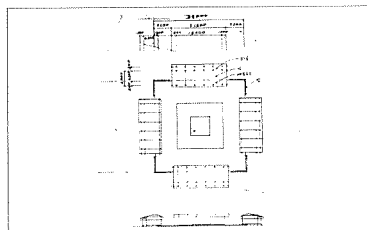
에필로그

비가 몹시 쏟아지던 가을날 아픈 몸을 이끌고 전주까지 간신히 운전하고 가서 전주에서 다른사람 차편으로 빗속을 뚫고 지리산을 향했다. 어둠속에 실상사에 도착하여 스님께 스케치를 넘겨드리면서 시주할 사람에게 이것을 주시고 시주자와 직접 관련있는 설계자에게 도면 및 인·허가작업을 시키시라고 했다. 필자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없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신은 살아서 꿈틀거리지만 기능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시주자는 레미콘을 부어 단일 건물로 콘크리트박스를 지으려고 할 것이고 숨쉬는 건물을 계획한 필자의 의도는 묵사발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않고 내가 하면 절에서는 내게 지불할 돈은 없을 것이고 나는 협력설계비를 물어내느라 또다시 여기저기 품팔이를 해야 할 터이니 마음이 아파도 냉정히 돌아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 未宗의 空間들이 散在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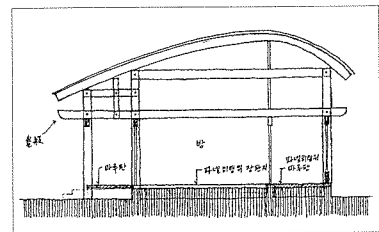
2) 참선의 예



스케치 3-1



스케치 3-2



스케치 3-3